

“올여름 피서는 진안고원에서” ‘장수쿨벨리페스티벌’ 성료

물·숲·별·빛 어우러진 여름 여행지 주목… 군, 본격 손님맞이 나서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군이 여름철 대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 시원한 계곡과 숲에서 더위를 식히는 ‘수강스’와 ‘숲캉스’, 밤하늘의 별과 야간 경관을 즐기는 ‘별캉스’와 ‘빛캉스’까지 낮과 밤 모두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름 관광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시원한 계곡과 숲에서 즐기는 여름

대표적인 여름 명소인 윤일암반일암은 깊은 계곡과 기암괴석,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진 곳으로 한여름에도 시원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계곡을 따라 조성된 탐방로와 길이 220m의 구름다리에서는 협곡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터도 함께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 다른 힐링 명소인 부귀편백숲산림욕장은 약 8천 그루의 편백나무가 조성된 숲으로, 산책로와 데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숲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휴식 공간
마이산 북부 마이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는 ‘동당풍당 야외족욕장’이 운영되고 있다. 야외족욕장과 바다분수, 벽



진안 윤일암반일암

천분수는 물론 힐링쉼터에서는 보드 게임과 피크닉 세트도 이용할 수 있으며, 8월과 10월에는 문화행사와 ‘빠망이의 힐링일기’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야외족욕장은 오는 11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보다 깊은 숲속 휴식을 원한다면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도 좋은 선택이다. 해발 650m 고원지대에 자리한 치유원은 숲길 산책과 맨발 걷기, 해먹 쉼터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별이 더욱 아름다운 진안

진안의 매력은 해가 진 뒤에도 이어진다.

부귀산전망대에서는 마이산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연화저수지에서는 구룡산을 배경으로 잔잔한 수면 위에 비치는 별빛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야간 경관도 빼놓을 수 없다. 산악초타운은 해가 지면 조명이 더해져 은은한 분위기의 산책 공간으로 변하고, 마이산 남부탐방로는 형형색색의 경관조명이 켜져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이산 남부주차장에서 탐사까지 이어지는 약 2km 구간을 걸으며 여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 청정 자연 활용 여름축제 체류형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력

장수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번안면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발길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연이 품은 계곡, 행복이 머무는 하루’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제한된 연휴와 맞물려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피서객들이 찾으며, 장수의 청정 자연과 시원한 계곡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 여름축제로 다시 한번 그 매력을 입증했다.

올해 개막식은 최근 축제 운영 흐름에 맞춰 의전과 축사를 과감히 줄이고 추진위원장의 개막 선언만으로 간결하게 진행해 방문객들이 축제 본연의 즐거움을 더욱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열린 대표 야간 프로그램인 ‘쿨벨리 벨리밤’에서는 탐사이벤과 DJ이안이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시원한 계곡과 어우러진 여름밤의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축제 마지막 날에도 카운트다운과 함께 DJ이안의 공연이 이어지며 방문객들에게 한여름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축제장을 가득 메운 관광객들은 음악과 물놀이를 함께 즐기며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된 송어잡기 체험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물을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는 체험형 축제로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축제기간 중 열린 쿨벨리트레일레이스가 기존 하루에서 올해부터 이틀간으로 확대 운영해 참가자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렸으며, 지역 내에서 2만 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경품 응모권을 제공하는 지역상생 이벤트도 높은 참여율을 기록해 축제장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임정택 계곡축제추진위원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장수의 아름다운 계곡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올해 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을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수만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차별화된 여름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

무주군, 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잇따라

무주군이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잇달아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방문이 숙박과 외식, 관광 소비로 이어지면서 스포츠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무주국민체육센터와 안성문화체육관 일원에서는 제12회 무주반딧불이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와 제31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검도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탁구 동호인과 임원 등 1,200여명이 참가해 시니어부와 일반부, 혼성 4인 단체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대회 개최식에서는 무주군탁구협회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 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협회는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같은 기간 안성문화체육관에서는 제31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검도대회가 개최됐다.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선수와 심판,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전북 검도인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두 대회 기간 하루 평균 약 1,900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지역을 찾으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광지 이용이 증가하는 등 체류형 소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대회가 단순한 경기 개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이끄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주의 스포츠 열기는 이달 말에도 이어진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교보생명과 대한탁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42회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선수단과 임원 등 하루 평균 1천여 명이 무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전북도민체전 준비
상황 중간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16일 군청 강당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중간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렸으며,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행정,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대행사 업체 등 총 77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개·폐회식 등 연출 계획과 대회 기간 교통통제 계획, 경기 운영 및 의료·환경·안전 대책, 숙박·음식점 위생관리, 자원봉사 운영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기간 간 협조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군은 대회 기간 동안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운영, 경기장별 의료지원반 배치,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강화 등 안전한 대회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개최식 당일에는 진안읍 시가지 교통관리와 셔틀버스를 운영해 행사장 접근 편의를 높이고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원활한 소통과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 가족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계절근로자의 이동 편의와 교육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사가 공동육아 및 희망 농가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진안읍(2농가), 안천면, 동향면, 주천면 농가의 농가형 계절근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30회에 걸쳐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근로자들은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주 1회, 회당 2시간씩 일상생활 및 농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한국어와 전문 농업 용어를 배우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4H 전북본부 한마음대회’ 장수서 열려

장수군은 지난 16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열린 ‘제34회 한국4H 전북특별자치도본부 한마음대회’가 전북특별자치도 4H 회원들의 화합과 미래 농업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회는 한국4H 전북특별자치도본부(회장 김정)가 주최하고 한국4H 장수군본부(회장 김용만)가 주관했으며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전북4-H와 함께!’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우 장수부군수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정상득 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과 전북특별자치도 4-H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4-H 정신을 되새기고 회원 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4-H 운동의 핵심 가치인 지(智)·덕(德)·노(勞)·체(體) 이념을 바탕으로 한 4-H 서약 제창을 시작으



로 유공자 표창, 환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회원들의 장기자랑과 어울마당이 펼쳐져 지역과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